

한국어 '보다'와 중국어 '看'의 의미항목 대비*

김종호**, 이민혜***

◁목 차▷

- I. 서론
 - II. '보다'와 '看'의 사전적 의미 분석
 - 1. 동사 '보다'
 - 2. 동사 '看'
 - III. '보다'와 '看'의 의미항목 대비
 - 1. 공통점
 - 2. 차이점
 - IV. 결론
-

I. 서론

사회의 변화와 언어의 발전에 따라 한국어의 동사 '보다'와 중국어의 동사 '看'은 이미 많은 의미항목으로 파생되었다. 이러한 의미항목들은 기본의미와 비교적 뜻이 비슷한 것도 있고, 기본의미와 의미적 차이가 커서 그 의미를 도출하기 힘든 것도 있다. 본 연구는 다의어 연구의 한 차원으로 한국어에서 사용 빈도가 비교적 높은 '보다'와 이에 상응하는 중국어 '看'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두 동사의 사전적 의미항목을 분석하고자 한다.

'보다'와 '看'의 사전적 의미항목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에서 가장 인정받는 권위적인 사전¹⁾을 각각 선별하고 사전에서 보이는 의미를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

* 이 논문은 2012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학부 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석사생

1) 한국어는 《표준국어대사전》을 사용하고, 중국어는 《現代漢語詞典》을 사용한다.

점을 비교한다.

‘보다’의 의미 분석을 위하여 《표준국어대사전(1999)》을 중심으로 참고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민중엣센스(2002)》, 《연세한국어사전(1998)》, 《국어대사전(1994)》²⁾을 참조한다. ‘看’의 의미분석을 위하여 《現代漢語詞典 第6版(2012)》을 중심으로 참고하며, 《現代漢語八百詞(2010)》, 《實用漢語詞典(2000)》, 《現代漢語大詞典(2001)》³⁾을 참조한다. 상기 사전적 의미가 가지는 공통점과 차이점의 분석을 통하여 ‘보다’와 ‘看’의 기본의미와 확장의미를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문은 ‘보다’와 ‘看’이 각각 본용언 즉 동사로 쓰일 때의 의미를 중심으로 하여 그 차이점을 밝히는데 초점이 있으므로, 한국어 ‘보다’가 보조동사와 보조형용사로 쓰이는 경우와 중국어 ‘看’이 조사로 쓰이는 경우의 대비 문제는 다음 연구 과제로 돌리기로 한다. 또한 본문에서 사용된 예문은 분석에서 사용된 8종의 사전과 CCL 語料庫(北京大學中國語言學研究中心)에서 발췌한다.

II. ‘보다’와 ‘看’의 사전적 의미 분석

1. 동사 ‘보다’

[표1] ‘보다’의 의미항목 비교표

번호	의미	표준 국어 대사전	국어 대사전	민중 엣센스	연세 한국어 사전
1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알다	○	○	○	○
2	눈으로 대상을 즐기거나 감상하다	○	○	○	○
3	책이나 신문 따위를 읽다	○			○
4	대상의 내용이나 상태를 알기 위하여	○	○	○	○

2) 이하 《표준국어대사전》은 《표준》으로, 《민중엣센스》는 《민중》으로, 《연세한국어사전》은 《연세》로, 《국어대사전》은 《국어》로 표기한다.

3) 이하 《現代漢語詞典》은 《現漢》으로, 《現代漢語八百詞》는 《八百詞》로, 《實用漢語詞典》은 《實用》으로, 《現代漢語大詞典》은 《大詞典》으로 표기한다.

	살피다				
5	일정한 목적아래 만나다	○	○	○	○
6	말아서 보살피거나 지키다	○	○	○	○
7	상대편의 형편 따위를 헤아리다	○			○
8	점 따위로 운수를 알아보다	○	○	○	○
9	(시험을) 치르다	○	○	○	○
10	어떤 일을 맡아하다	○	○	○	○
11	어떤 결과나 관계를 맺기에 이르다	○	○	○	○
12	음식상이나 잡자리 따위를 채비하다	○	○	○	○
13	대소변을 누다	○	○	○	○
14	어떤 관계의 사람을 얻거나 맞다	○	○	○	
15	부도덕한 이성 관계를 갖다	○	○	○	
16	어떤 일을 당하거나 겪거나 얻어가지다	○			
17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다	○			○
18	신문, 잡지 따위를 구독하다	○			○
19	음식 맛이나 간을 알기 위하여 시험 삼아 조금 먹어보다	○			○
20	남의 결점 따위를 들추어 말하다	○			
21	남의 결점이나 약점 따위를 발견하다	○			
22	기회, 때, 시기 따위를 살피다	○	○	○	
23	땅, 집, 물건 따위를 사기 위하여 살피다	○			○
24	(‘장’ 또는 ‘시장’과 같이 쓰여) 물건을 팔거나 사다	○	○	○	○
25	(주로 ‘보고’꼴로 쓰여) 고려의 대상이나 판단의 기초로 삼다	○			○
26	(주로 ‘보고’꼴로 쓰여) 무엇을 바라거나 의지하다	○			○
27	대상을 평가하다	○			
28	사람을 만나다	○			
29	(예배를) 드리다				○
30	~에 의하면, ~을 참고하면				○
31	미루어 추측하자면, ~을 근거로				○
32	값을 부르다		○	○	
33	누려서 가지다		○	○	
34	몹소 당하다 (손해를 보다)		○	○	
35	참고 기다리다 (어디 두고 보자)		○	○	
36	잘 살피거나 고려하여				○

《표준》의 의미기술을 기준으로 하여 표를 만들고, 《국어》, 《민중》, 《연세》에서 다루고 있는 의미들을 분류하여 해당되는 항목에 표시하였다. 이 표를 통하여 볼 때 ‘보다’는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알다’를 기본의미로 설정하고 있다. ‘보다’의 동사로서의 의미항목 분류에 있어 《표준》은 28개, 《국어》는 19개, 《민중》은 19개, 《연세》는 24개로 사전마다 의미항목의 수가 동일하지 않다. 결국 ‘보다’에 대한 한국어 사전의 의미항목분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다.

첫째, ‘보다’의 다의적인 의미 양상을 충분히 기술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미 분류 기준이 동일하지 않다. 즉, 《표준》은 ‘손해를 보다’ 등의 의미를 제시하지 않았고, 《국어》와 《민중》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다’, ‘남의 결점이나 약점 따위를 발견하다’ 등의 항목이 누락되어 있다. 《연세》는 ‘어떤 관계의 사람을 맞거나 언다’의 항목을 제시하지 않았다.

둘째, 사전마다 중복된 의미를 배열하는 경우가 있다. 즉, 《표준》에서 ‘일정한 목적 아래 만나다’와 ‘사람을 만나다’의 항목의 예문은 ‘맛선을 보다’, ‘친구를 보다’이다. 이는 사람을 만나서 ‘눈으로 보다’의 의미가 있으므로 중복된 의미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표준》, 《국어》, 《민중》에서 ‘어떤 관계의 사람을 언거나 맞다’와 ‘부도덕한 이성 관계를 갖다’의 항목 역시 ‘며느리를 보다’, ‘셋서방을 보다’로 예문을 들 수 있는데 사람을 [+획득]했다는 점에서 중복된 의미로 볼 수 있다. 본문에서는 이처럼 중복된 의미항목은 하나로 간주하여 아래의 [표2]로 정리한다.

[표2] ‘보다’의 의미항목 정리표

	번호	의미
보다	1	눈으로 인식하거나 느끼다. 읽다, 즐기거나 감상하다 뜻을 알아내다
	2	사람을 만나다
	3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다
	4	맡아서 보살피거나 지키다
	5	무엇을 어떠한다고 생각하다, 판단하다
	6	(음식의 맛이나 간을 알기 위해) 미리 시험 삼아 조금 먹다
	7	점 따위로 운수를 알아보다
	8	시험을 치르다
	9	어떤 일을 맡아 하다

	10	어떤 결과나 관계를 맺기에 이르다
	11	음식상이나 잠자리 따위를 채비하다
	12	대소변을 누다
	13	어떤 관계의 사람을 얻거나 맞다
	14	(사기 위해서) 물건을 살피다
	15	물건을 사다
	15	신문·잡지를 구독하다
	16	남의 결점 따위를 들추어 말하다, 발견하다
	17	기회·때·시기 따위를 살피다
	18	어떤 일을 당하거나 겪거나 얻어가지다
	19	(예배를) 드리다

《표준》을 기준으로 《국어》, 《민중》, 《연세》의 의미항목을 추가시켜 비교해 본 결과 공통된 의미항목은 36개의 의미항목 중 12개이다. 본고에서는 결과를 종합하여 비슷하고 중복된 의미를 갖는 항목을 서로 묶어 '보다'의 의미항목을 19개로 설정한다.

[표1]에서 1번, 2번, 3번, 4번의 항목은 '보다'의 기본의미로써 '눈으로 사람 혹은 사물을 보다'의 '인식'과 '살핌'의 단계로 볼 수 있기에 하나로 통합시켜 [표2]에서 1번 항목으로 만든다.

[표1]에서 5번, 28번의 항목과 14번, 15번의 항목은 각각 '사람을 만나다', '사람을 얻다'의 의미로 서로 묶을 수 있기에 [표2]에서 2번, 13번으로 제시한다.

[표1]에서 7번, 25번, 26번, 26번, 31번, 30번, 36번 항목은 '무엇을 어떠한다고 생각하다, 판단하다'의 의미를 갖는 항목으로 [표2]에서 5번 항목에 분류한다.

[표1]에서 16번, 33번, 34번, 35번의 항목은 '어떠한 일을 겪거나 얻어 가지다'의 의미로 하나로 통합하여 [표2]에서 18번의 항목으로 제시한다.

[표1]에서 20번, 21, 34번의 항목은 '결점을 들추어내다'의 동일한 의미를 갖는 의미항목으로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 16번으로 제시한다.

[표1]에서 23번, 24번, 32번의 항목은 '물건을 사다'의 의미를 갖는 중복된 의미항목으로 [표2]에서 14번, 15번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이 밖의 항목들은 모두 개별 항목으로 취급하여 19개의 항목으로 만든다.

2. 동사 ‘看’

‘看’의 의미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現代漢語詞典》을 기준으로 삼고, 《現代漢語八百詞》, 《實用漢語詞典》, 《現代漢語大詞典》을 참고하여 의미항목을 분류한 결과는 [표3]과 같다.

[표3] ‘看’의 의미항목 비교표

	번호	의미	現代漢語詞典	現代漢語八百詞	實用漢語詞典	現代漢語大詞典
看 (kān)	1	守護照料 (돌보다, 보살피다)	○		○	
	2	看押 (감시하다)	○		○	
看 (kàn)	3	使視線接觸人或物 (시선을 사람이나 사물에 두다)	○	○	○	○
		閱讀 (읽다)			○	
	4	觀察並加以判斷: 認為 (관찰하다, 판단하다, 여기다)	○	○	○	○
		估計 (추측하다)				○
	5	取決於 ; 決定於 (~에 달려있다)	○	○	○	○
	6	訪問 ; 探望 (방문하다)	○	○	○	○
	7	對待 (대하다)	○		○	
	8	診治 (진료하다)	○	○	○	○
	9	照料 (돌보다, 보살피다)	○			
	10	[助] 小心、注意 (조심하다, 주의하다)	○	○	○	○
	11	[助] 試圖 (시도하다)	○		○	

《現漢》은 ‘看’의 의미를 kān과 kàn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kān은 2개의 의미항목으로, kàn은 9개의 의미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 밖의 《八百詞》는 6개, 《實用》은 11개, 《大詞典》은 7개의 의미로 분류한다.

‘看’ 역시 ‘보다’와 마찬가지로 의미에 대한 사전 분류방식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

다.

첫째, '看'에 대한 의미의 기술에 출입이 있다. 《現漢》과 《八百詞》, 《大詞典》은 '使視線接觸人或物(시선을 사람이나 사물에 두다)'의 항목과 '閱讀', '觀賞'(읽다, 감상하다)의 항목을 하나의 의미항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實用》에서는 따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 이는 본문에서는 하나의 의미항으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또한 '돌보다'의 항목으로 《現漢》은 '守護照料(돌보다, 지키다)', '看押(구금하다)', '照料(돌보다)'의 3가지 항목으로 자세히 나누어 제시한 반면 《實用》은 '守護照料(돌보다, 지키다)', '看押(구금하다)'의 2가지 항목으로 제시하며, 나머지 《八百詞》와 《大詞典》은 아예 그 내용이 없다. 이에 대해 본문에서는 《現漢》에서 제시한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照料(돌보다)'로 통합하여 하나의 의미항목으로 간주하고 분석한다.

둘째, '看'의 의미항목 중 '觀察(관찰하다)'는 한국어 '보다'의 '관찰하다', '판단하다', '생각하다', '어떤 결과나 관계를 맺기에 이르다', '남의 결점 따위를 들추어 말하다', '발견하다', '기회·때·시기를 살피다' 등을 포함한다. 이는 사용빈도가 높으며, 각각 의미차이가 작지 않다. 따라서 '觀察(관찰하다)'의 한 의미항목 속에 모두 담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상세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 밖의 의미항목 10과 11번은 '看'이 조사로 쓰인 경우인데 본문에서는 '보다'와 '看'이 본용언으로 쓰일 때를 비교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므로 이 두 항목은 제외한다. [표4]는 각 사전의 의미를 종합하여 7가지로 의미항목을 재분류한 것이다.

[표4] '看'의 의미항목 정리표

번호	의미	
	1	使視線接觸人或物: 閱讀, 觀賞 (시선을 사람이나 사물에 두다: 읽다, 감상하다)
2	訪問: 探望 (방문하다, 찾아뵙다)	
3	診治 (진료하다)	
4	照料 (돌보다)	
5	判斷, 認爲, 觀察 (판단하다, 여기다, 관찰하다)	
6	對待 (대하다)	
7	取決於 ; 決定於 (~에 달려있다)	

Ⅲ. ‘보다’와 ‘看’의 의미항목 대비

1. 공통점

동사로서의 한국어 ‘보다’와 중국어 ‘看’은 아래와 같은 8개의 공통 의미항목을 가진다.

- ① 눈으로 인식하거나 느끼다. 감상하다. 읽다
- ② 사람을 만나다
- ③ 진찰하다
- ④ 보살피거나 지키다. 감시하다
- ⑤ 생각하다. 판단하다, 평가하다
- ⑥ 어떤 결과나 관계를 맺기에 이르다
- ⑦ 남의 결점 따위를 들추어 말하다. 발견하다
- ⑧ 기회, 때, 시기를 살피다

먼저 각 의미항목의 예를 보자.

- (1) a. 우리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가자. b. 我們去電影院看電影吧。
- (2) a. 시간이 나면 너를 보러 갈게. b. 有空我來看你。
- (3) a. 양의사가 보기도 하고 중의사가 보기도 하며 다양한 치료를 했지만 전부 효과가 없었다.....
b. 看西醫, 看中醫, 多方診治, 全無效果.....(중략)
- (4) a. 남편은 오늘 아이를 본다. b. 丈夫今天看孩子。
- (5) a. 내가 보기에 내일 비는 안 올 것 같아. b. 我看明天不會下雨。
- (6) a. 나는 드디어 결말을 봤다. b. 我終於看到結局了。
- (7) a. 사랑하면 단점이 안 보인다. b. 相愛看不到缺點。
- (8) a. 이 건의를 하려면 때를 보아야 한다. b. 提這項建議要看時候兒。

‘보다’와 ‘看’은 모두 ‘눈으로 인식하거나 느끼다’, ‘使視線接觸人或物(시선을 사람이나 사물에 두다)’를 기본의미로 두고 있다. 기본의미로서의 ‘보다’와 ‘看’은 주체가

외부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의 존재나 외형적 특징을 눈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상 안에 숨겨진 특성이나 의미를 파악하는 인식의 과정은 없다.⁴⁾ 이 기본의미는 '보다'와 '看'을 여러 가지 의미로 확장시킨다. (1a, b)는 기본의미에서 출발하여 의미가 확장되어 영화를 '감상하다'의 의미가 되면서 외형을 보는 의미에서 내부적인 속성을 보는 의미로 전이⁵⁾되었다. 이는 환유의 원리가 작용한 것으로 의미의 인접성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보다'와 '看'은 (2a, b)에서 보듯이 기본의미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서의 '만나다', '방문하다', '찾아뵙다'의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된다. 이는 시각적으로 보아서 상대방의 존재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만남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인지의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보다'와 '看'은 '진찰하다'의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될 수 있다. '병을 보다', '환자를 보다'라는 것은 단순히 '보다'라는 행위를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환자의 병의 유무 또는 상태 등을 살피고 치료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때, '看'은 '보다'와 달리 목적어로 [+지배대상]⁶⁾이 아닌 [+행위자]의 의미자질을 갖는 특징이 있다. (3a)에서 보듯이 '看'은 목적어 자리에 医生(의사), 中医(한의사), 西医(양 의사) 등의 어휘가 올 경우에 의사가 행위자로 해석이 되어 '의사가 진찰을 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보다'와 '看'은 눈으로 '보는' 행위가 부각되면서 어떤 대상을 보살피고 돌보는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될 수 있다. (4a, b)는 '아이를 돌보다'의 의미로 쓰인 예이다.

'보다'와 '看'은 무언가를 보고 그것을 기초로 삼아 생각하고 판단하는 평가의 단계로 의미가 확장 될 수 있다. (5a, b)는 인식(認識)으로서의 '판단하다', '생각하

4) 김수정(2007)에서 인용함

5) '의미의 전이'는 유사하거나 인접으로 인한 연상관계에 의해 한 의미에서 다른 의미로 옮겨가는 현상을 말한다. 임지룡(1997)은 이러한 전이를 일으켜 의미를 확장시키는 기제를 '은유'와 '환유'로 설명하는데 은유는 유사성, 환유는 인접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김종도(2002)는 은유는 낱말이 보통 자기가 지시하는 것과 닮은 것 대신에 쓰이는 현상이고 환유는 낱말이 보통 자기가 지시하는 것과 관련된 것 대신에 쓰이는 현상으로 정의한다. 이 두 비유법은 의미 확장의 근본적인 틀의 역할을 한다.

6) 김종호(2011)는 술어와 관련되는 명사구에 대하여 그 성분의 의미적 자격이나 통사적 제약의 강약에 근거하여 '행위자(施事)', '지배대상(受事)' 등으로 분류했다. 이에 행위자성이 있는 명사구를 행위자(施事), 동사의 지배대상이 되는 명사구를 지배대상(受事)이라 한다. 본문에서는 목적어의 의미자질을 분석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주체의 행위나 동작의 대상이 되면 [+지배대상], 행위를 하는 주체가 되면 [+행위자]로 분류한다.

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예이다. 목적어로 구체적인 사물 등이 오기 보다는 상황이나 사태 등의 [-구체성]의 의미자질을 갖는 추상적인 개념이 오는 경우가 많다. 이때 ‘看’은 ‘~라고 보다’로 해석되며 ‘~라고 여기다(認爲, 以爲)’, ‘~라고 생각한다(想)’로 대체할 수 있다.

‘보다’와 ‘看’은 눈으로 구체적인 사람 혹은 사물을 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어떤 결과나 관계 등과 같은 추상적인 결과물을 ‘획득하다’의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할 수 있다. (6a, b)처럼 목적어로 ‘끝장’, ‘결말’, ‘합의’, ‘결말’ 등의 단어가 와서 행위의 목표점 혹은 종착점에 다다르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중국어사전에서는 ‘어떤 결과나 관계를 보다’의 의미항목을 따로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觀察(관찰하다)’의 예로 제시하고 있다.

‘보다’와 ‘看’은 ‘남의 결점을 들추어 말하다’의 의미를 가지며 (7a, b)의 ‘단점’, ‘흠’ 등의 어휘와 결합하여 의미를 파생시킨다. 기본의미에서 ‘보다’는 어떠한 외형을 갖춘 사람이나 사물을 통해서 ‘보다’의 행위가 일어나지만 점점 단점, 흠 등과 같이 형태가 없는 것으로 환유의 원리를 사용하여 의미 확장이 이루어진다. 목적어는 [-사람], [+지배대상], [-구체성]의 의미자질을 갖는다. 중국어사전에서는 ‘남의 결점을 들추어 말하다’의 항목을 따로 제시하지 않고 ‘觀察(관찰하다)’의 의미항목의 예로 설명하고 있다.

‘보다’와 ‘看’은 기회, 때, 시기 등의 목적어와 함께 쓰여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나 상태를 보고 추측한다는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할 수 있다. (8a, b)처럼 목적어는 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정해지지 못한 상황이나 상태 등이 쓰여 [-구체성], [+지배대상]의 의미자질을 갖는 명사성 성분이 온다. 중국어사전에서는 ‘기회, 때, 시기를 살피다’의 항목을 따로 분류하고 있지 않고 ‘觀察(관찰하다)’의 의미항목의 예로 제시하고 있다.⁷⁾

7) 중국어 ‘看’의 의미항목 중 ‘觀察(관찰하다)’는 한국어 ‘보다’의 ‘관찰하다’, ‘판단하다’, ‘생각하다’, ‘어떤 결과나 관계를 맺기에 이르다’, ‘남의 결점 따위를 들추어 말하다’, ‘발견하다’, ‘기회, 때, 시기 등을 살피다’ 등의 항목을 모두 포함한다. 이는 사용빈도가 높으며 각각의 의미차이가 작지 않기에 한 항목 속에 모두 담기에는 부적절하므로 각각의 의미항목으로 구별하여 제시해야 하겠다.

2. 차이점

1) '보다'에만 있는 의미

① 점 따위로 운수를 알아보기

'보다'는 '점', '사주', '관상' 등을 목적으로 가지면서 사람의 길흉화복을 알아보기 위해 점괘를 보다는 뜻을 가진다. 이는 점을 보러 온 사람의 손이나 얼굴 등을 살펴봄으로서 점괘 등을 알아내는 것으로 기본의미에서 '살피다'의 의미로 확장이 되어 사용된다. '보다'의 목적어는 주로 운수, 궁합, 손금, 관상 등으로 쓰여 [-구체성]의 의미자질을 갖으며 점술가라는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대상을 나타내므로 [+지배대상]의 의미자질을 갖는다. 아래 예를 보자.

(9) 어떻게 눈치 챘니? 너 손금도 볼 줄 아니?

(10) 우리나라는 관상보기, 풍수보기 등의 풍속이 유래가 깊다.

본고에서 분석대상으로 하는 4종의 중국어사전의 '看'에는 이러한 의미항목이 없다. 그러나 다음 예를 보자.

(9') 怎麼看得出來, 你還會看手相兒?

(10') 在我國, 看相、看風水等習俗由來已久。

(9')와 (10')를 보면 '看'에도 '운수를 보다'의 의미가 있다. 주로 '看手相(손금을 보다)', '看相(관상을 보다)', '看風水(풍수를 보다)' 등으로 자주 사용된다.

본고에서 분석대상으로 한 중국어 사전에서는 이와 같은 의미항목이 없으므로⁸⁾ 새로운 의미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8) '운수를 보다'의 뜻으로 중국어에서 '看手相(손금을 보다)', '看相(관상을 보다)', '看風水(풍수를 보다)'가 자주 사용되어 이를 '보다'와 '看'의 공통점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본고는 한국어사전과 중국어사전의 사전적 의미를 기준으로 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사전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제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보다'와 '看'의 차이점으로 분석한다.

② 시험을 치르다

‘보다’는 ‘시험을 치르다’의 뜻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 시험을 치르는 행동은 눈으로 시험지를 보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 의미로 확장이 되어 사용된다. 이는 ‘과거를 보다’처럼 중세 국어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던 형태다. 목적어는 주로 시험, 면접 등이 오며 [-사람], [+구체성]의 의미자질을 갖는다. 또한 행위자가 시험이나 면접 등을 치르는 것이기에 목적어는 [+지배대상]의 의미자질을 갖는다. 아래 예를 보면,

- (11) 시험 잘 보았니?
 (12) 우리 반은 매월 1일에 시험을 본다.

중국어에서는 ‘시험을 치르다’의 뜻으로 ‘看試’이라는 말 대신 동사 ‘考’를 사용하여 ‘考試(시험을 보다)’로 나타낸다.

- (13) 我已經考完試了。(나는 이미 시험을 다 봤다.)
 (14) 我們學校每學期只考兩次試。
 (우리 학교는 매 학기에 오직 2번 시험을 본다.)

③ 어떤 일을 맡아 하다

한국어에서 ‘보다’는 ‘어떤 일을 맡아 하다’의 의미항목을 갖는다. 일상생활에서 많은 일들이 주로 ‘보는’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인접의미로써 ‘어떠한 일을 하다’의 수행의 의미로 확장된다. 목적어는 사무 혹은 일, 주례, 심판 등이 와서 맡겨진 일을 해내다의 뜻으로 사용이 된다. 다음 예를 보면,

- (15) 철수는 삼촌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사무를 보고 있다.
 (16) 내가 그 친구의 결혼식 주례를 보았지.

중국어에서는 ‘辦(처리하다)’ 또는 ‘做(하다)’를 사용하여 말한다. 목적어는 [-사람], [+지배대상], [-구체성]의 의미자질을 갖는 성분이 주로 온다.

(17) 他辦事很穩當。(그는 일처리를 믿음직스레 한다.)

(18) 他誠心誠意地做事。(그는 성심성의로 일한다.)

④ 음식상이나 잠자리 따위를 채비하다

'보다'는 어떤 일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준비하고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의미로 확장될 수 있다. 목적어로 주로 음식상, 술상, 자리 등의 명사성 성분이 오며 [-사람], [+구체성], [+지배대상]의 의미자질을 갖는다. 다음 예를 보자.

(19) 어머니는 술상을 보느라 바쁘시다.

(20) 손님 주무실 자리를 봐 드러라.

같은 표현으로 중국어에서는 '看'을 사용하지 않고 '準備(준비하다)', '鋪(깔다)' 등의 동사를 사용하여 말한다.

(21) 給父親準備上飯桌。(아버님께 진짚상을 준비해드리다.)

(22) 他爲我鋪被褥。(그는 나를 위해 이불을 깔아주었다.)

⑤ 대소변을 누다

'보다'는 '배설하다'의 의미가 있다. 처음 몸 안에 있던 대변이나 소변은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몸 밖으로 배출시키면서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므로 '배설하다'의 의미를 완곡하게 사용하여 '보다'로 의미를 확장시켜 사용할 수 있다. 목적어는 특정하게 '대변, 소변' 등을 뜻하는 단어와 결합하여 [-사람], [+지배대상], [+구체성]의 의미자질을 갖는다. 아래 예를 보면,

(23) 이 강아지는 기특하게도 집안에서는 절대 대소변을 보지 않는다.

(24) 영화는 소변을 보러 1층 화장실에 내려갔다.

중국어에서는 동사 '看'을 사용하지 않고 동사 '解'를 사용하여 '解大手(대변을 보다)' 혹은 '解大便'(대변을 보다), '解小手(소변을 보다)' 라고 말한다.

(25) 解大便往往不痛快。(변을 보는 것이 늘 시원하지 않다.)

(26) 我想解小手。(나는 소변을 보고 싶다.)

⑥ 어떤 관계의 사람을 얻거나 맞다

‘보다’는 아들이나 딸, 며느리나 사위처럼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맞이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손자나 손녀를 얻다의 의미가 있다. 또한 ‘셋서방을 보다’, ‘시את을 보다’ 등 비도덕적인 이성 관계를 맺다의 의미를 포함한다. 이때 ‘보다’는 바라던 사람과 바라지 않던 사람을 눈으로 보게 되어 얻게 되었다는 획득의 의미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것은 환유의 원리가 작용하여 ‘보다’가 ‘획득하다’의 의미를 포함하게 된 것이다. 목적어는 [+사람], [+지배대상], [+구체성]의 의미자질을 갖는다. 다음 예를 보면,

(27) 그는 착한 며느리를 봤다고 입에 침이 마르게 자랑을 했다.

(28) 시את을 보면 길가에 돌부처도 돌아앉는다.

중국어는 ‘看’ 대신에 ‘抱(자식이나 손자를 얻다), 得(얻다)’ 등의 동사를 사용하여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29) 你還不準備抱孫子? (당신은 아직 손자를 볼 준비가 안 되셨나요?)

(30) 那个奶奶得了个好女婿。(그 노인은 좋은 사위를 보았다.)

⑦ 물건을 살피다

‘보다’와 ‘看’은 구매를 목적으로 집이나 땅을 눈으로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보는’ 행동에서 ‘어떤 물건을 사려고 살피며 고르다’의 의미로 확장 되었다. 목적어는 ‘집, 땅’ 등의 [-사람], [+구체성], [+지배대상]의 의미자질을 갖는 명사성 성분을 갖는다. 다음 예를 보자.

(31) 집을 볼 때 주의해야할 점이 무엇인가요?

(32) 우리는 땅을 보러 갔다.

본고에서 분석대상으로 하는 4종의 중국어사전의 '看'에는 이러한 의미항목이 없다. 그러나 다음 예를 보자.

(31') 看房子應該注意什麼?

(32') 我們要去看地皮。

(31')와 (32')처럼 '看'은 '보다'와 동일하게 '집 혹은 땅을 살피다'의 의미로 확장이 되어 구매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본고에서 분석대상으로 한 '看'에 대해 중국어사전에서는 '물건을 살피다'의 항목을 따로 분류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⁹⁾ 새로운 의미항목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⑧ 물건을 사다

'보다'는 시장에 가서 물건을 보고 구매하는 행위로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될 수 있다. 목적어는 '시장, 장, 집' 등이 주로 사용되며 [-사람], [+구체성], [+지배대상]의 의미자질을 갖는 명사성 성분을 갖는다. 다음 예를 보자.

(33) 부인은 일을 서둘러 끝내고 시장을 보러 갔다.

(34) 하루 종일 장을 보느라 돌아다녔더니 다리가 아프다.

중국어에서 같은 의미로 동사 '買(구매하다)'를 사용하여 '買東西(물건을 사다)' 등으로 표현한다.

(35) 媽媽去市場買東西。(엄마는 물건을 사러 시장에 가신다.)

⑨ 신문, 잡지를 구독하다

9) '[1] 점 따위로 운수를 보다'와 마찬가지로 '물건을 살피다'는 '보다'와 '看'의 공통점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본고는 한국어사전과 중국어사전의 사전적 의미를 기준으로 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사전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제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보다'와 '看'의 차이점으로 분석한다.

‘보다’는 ‘책이나 신문 등을 구독하다’의 의미를 가진다. 눈으로 책을 보아서 ‘(책이나 잡지 따위를) 읽는다’의 의미로 사용이 되다가 여기서 더 의미가 확장하여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이나 잡지가 목적어로 사용될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구입하여 읽는다, 구독하다’의 의미로 환유의 원리로 확장되어 사용된다. 목적어는 [-사람], [+지배대상], [+구체성]의 의미자질을 갖는다. 다음 예를 보면,

- (36) 보던 신문을 끊고 다른 신문으로 바꾸다.
 (37) 잡지 보는 거 있어요?

중국어에서는 같은 표현으로 ‘訂閱(구독하다)’를 사용한다.

- (38) 我家訂閱晚報。(우리 집은 석간신문을 구독한다.)

⑩ 어떤 일을 당하거나 겪거나 얻어가시다

‘보다’는 경험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피해나 손해, 욕(고생)처럼 부정적인 일을 당하게 되거나 외부적 상황 덕분에 이익 등과 같이 긍정적인 것을 얻는다는 ‘획득하다’의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때의 ‘보다’는 ‘얻다’, ‘경험하다’로 대체할 수 있다. 목적어는 [-사람], [+지배대상], [-구체성]의 의미자질을 갖는다. 다음 예를 보자.

- (39) 그는 새로운 광맥을 발견하여 큰 이익을 봤다.
 (40) 손해를 보면서 물건을 팔 사람은 없다.

중국어는 이와 같은 표현을 ‘受(到)(얻다)’, ‘得到(얻다)’ 등의 동사를 사용하여 말한다.

- (41) 被利益驅動, 反倒受了損失。(이익을 쫓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
 (42) 我公司得到巨大的利益。(우리 회사는 큰 이익을 보았다.)

⑪ 음식의 맛이나 간을 알기 위하여 조금 먹어보다

'보다'는 '맛'이라는 특정한 어휘와 결합하여 '(음식의 간을 알아보기 위하여) 맛을 보다'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사실 '맛'은 미각 영역이지만 한국어는 '어떠한 맛을 경험하다'라는 의미를 시각 동사인 '보다'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하지만 음식물과 관련된 미감(味感)을 갖는 대상이 아닌 어휘가 목적어로 쓰일 경우에는 '맛'이 갖는 다의성¹⁰⁾으로 인해 3가지 의미로 확장이 되어 관용적인 표현을 만들기도 한다. (43)은 음식물의 맛을 실제로 본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44)는 어떠한 경험을 통해 느끼는 기분을 의미한다. (45)는 돈이 가지는 힘 등을 부각시켜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었다. 이에 목적어는 주로 [-사람], [-구체성], [+지배대상]의 의미 자질을 가진다. 그 예를 보면,

[음식 따위를 혀에 닿 때에 느끼는 감각]

(43) 국을 맛보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하여 느끼는 기분]

(44) 한번 뜨겁게 맛봐야 그 버릇을 고칠 거다.

[체험을 통하여 알게 된 느낌]

(45) 돈 맛을 보면 절대 잊을 수가 없을 거야.

중국어는 이러한 표현으로 嘗(맛보다), 品嚐(맛보다) 등을 사용한다. 이때 '嘗(맛보다)'도 '음식의 맛을 보다'와 '어떠한 상황이나 상태를 경험하다'의 2가지 의미로 나누어 사용된다.

(46) 婆婆釐媳婦做的飯菜的味道。(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만든 음식의 간을 보다)

[경험하다, 체험하다]

(47) 苦的甜的都嘗過。(쓴맛 단맛을 다 보았다. → 갖은 경험을 다했다.)

10) 맛은 3가지의 뜻을 갖는 다의어이다. 첫째, 음식 따위를 혀에 닿 때에 느끼는 감각이다. 둘째,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하여 느끼는 재미나 만족감이다. 셋째, 체험을 통하여 알게 된 느낌이다.

⑫ 예배를 드리다

‘보다’는 ‘예배를 드리다’의 의미를 갖는다. ‘예배를 드리다’는 신이나 부처와 같은 초월적인 존재 앞에서 경배하는 의식을 나타낸다. 이러한 의식은 신의 모습을 한 형상물이나 성경책 등을 ‘보면서’ 하는 행동으로 환유의 원리가 작용하여 의미가 파생되어 ‘(예배를) 드리다’를 대신할 수 있는 표현이 되었다. 다음 예를 보면,

- (48) 나는 언제나 일요일에 예배를 본다.
 (49) 그는 미사를 보기 위해 성당으로 향했다.

중국어는 같은 의미로 ‘看’을 사용하지 않고 동사 ‘做’를 사용하여 ‘예배를 드리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 (50) 這周在教堂做了特別禮拜。(이번 주에 교회에서 특별예배를 보았다.)

2) ‘看’에만 있는 의미

① 取決於(～에(게) 달려 있다.)

‘看’은 ‘～에(게) 달려 있다’의 의미를 가진다. 목적어는 (51)과 (52)처럼 사람이 올수도 있고 어떠한 상황이나 사태 혹은 추세가 될 수도 있기에 ‘看’의 의미는 환유의 원리가 작용하여 구체적인 것을 보는 것에서 추상적인 것을 보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목적어는 [+사람], [+추상성]의 의미자질을 갖게 된다. 아래 예를 보면,

- (51) 這件事能不能成功全看你了。
 (52) 談得成談不成就看運氣了。

중국어 ‘看’에 대응하는 한국어의 예를 보자.

- (53) 이 일의 성공여부는 너에게 달려 있다.
 (54) 일이 성사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운에 달려 있다.

한국어는 (53)과 (54)의 ‘看’과의 대응관계를 보면 ‘보다’로 대응되지 않고 ‘～에

(계) 달려 있다'를 사용함을 알 수 있다.

IV. 결론

지금까지 본고는 다의어 연구의 한 차원으로 사용 빈도가 비교적 높은 한국어 동사 '보다'와 이에 상응하는 중국어 동사 '看'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한국의 《표준국어대사전》과 중국의 《現代漢語詞典》을 중심으로 사전적 의미항목을 분석하고 두 동사의 의미항목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했다.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어 '看'은 한국어 '보다'의 '머느리를 보다'와 같이 사람을 취하는 '획득'의 의미항목이 없으며 '시험을 보다', '사무를 보다', '대소변을 보다', '예배를 보다' 등의 '수행'과 관련된 의미항목이 없다.

둘째, 한국어 '보다'는 목적어로 [+지배대상]의 의미자질을 갖는 성분만 올 수 있지만, 중국어 '看'은 [+행위자]의 의미자질을 갖는 성분도 목적어로 올 수 있다.

본고는 대비를 통해 한국어 '보다'와 중국어 '看'의 사전 분류방식의 몇 가지 문제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본고에서 사용된 8종의 사전은 '보다'와 '看'의 다의적인 의미 양상을 충분히 기술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전마다 의미 분류 기준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중국어 '看'의 의미항목 중 '觀察(관찰하다)'는 한국어 '보다'의 '관찰하다', '판단하다', '생각하다', '어떤 결과나 관계를 맺기에 이르다', '남의 결점 따위를 들추어 말하다', '발견하다', '기회, 때, 시기를 살피다' 등의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데 이는 사용빈도가 높으며 각각의 의미차이가 작지 않기에 한 항목 속에 모두 담기에는 부적절하므로 각각 상세히 구별하여 제시해야 한다.

셋째, 중국어 '看'의 의미항목 설정에서 한국어 '보다'와 달리 '점이나 운수를 보다(看手相)'와 '물건을 살피다(看房子)'의 의미항목을 따로 설정하지 않으나 각각 새로운 의미항목으로 제시해야 한다.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한국어 '보다'가 보조동사와 보조형용사로 쓰이는 경우와 중국어 '看'이 조사로 쓰이는 경우의 대비 문제는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參考文獻】

[1] 단행본

- 김중도, 《인지문법의 디딤돌》,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2002.
김중호, 《현대 중국어 화제화 이중명사구문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2011.
이정식, 《다의어 발생론》, 서울, 도서출판 역락, 2003.
임지룡, 《국어의미론》 서울, 탐출판사, 1992.
임지룡, 《인지의미론》 서울, 탐출판사, 1997.

[2] 논문

- 김수정, 〈동사 '보다'의 다의 체계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박종석, 〈국어동사 '보다'의 의미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송효빈, 〈동사 '보다'의 인지적 연구〉; 《한국언어문학》 49, 2002.
윤명상, 〈동사 '보다'의 문법화〉,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윤성희, 〈보조용언 '보다' 구문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이종열, 〈'먹다'의 다의적 의미와 구문적 확장〉; 《한국어학》 27, 2005.
정병철, 〈지각동사 '보다'의 의미망〉; 《문학과 언어》 28, 2006.
정성임, 〈현대중국어 어휘소 '看'의 다의성 고찰〉; 《중국학연구회》 중국학연구, Vol.30, 2004.

[3] 사전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주)두산동아, 1999.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1998),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이희승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94.
이희승 《민중엡센스 국어사전》, 서울, 민중서림, 2002.
이희승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94.
呂叔湘 《現代漢語八百詞 (增訂本)》, 北京, 商務印書館, 2010.
商務印書館辭書研究中心編 《實用漢語詞典》, 北京, 商務印書館, 2000.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 第6版》, 商務印書館, 2012.
周行健 《現代漢語大詞典》, 北京, 學苑出版社, 2001.

【中文提要】

韓語'보다'和漢語'看'都具有'使視線接觸人或物'的本義，並且都是一個具有極強語義擴展性的高頻動詞。特別是一些高頻動詞，使用頻率越高，語義的發展線素越豐富，其義項越多。

韓語'보다'不僅在其基本意義上與漢語的'看'相似，而且也經歷了很多發展變化，引伸出很多不同的義項。這些義項不僅在基本意義上具有相同的意思，同時也有不同的意思。在韓中兩國的語言中，'보다'和'看'既有共性語義內容，也有屬於各自民族的個性語義內容。

本文主要通過《표준국어대사전》和《現代漢語詞典》來分析韓語'보다'和漢語'看'相同的義項和不同的義項，以便更好地展現它們各自的語義特點。根據這兩本詞典的比較總結出來的韓語'보다'和漢語'看'的主要共同點和不同點如下。

一，韓語'보다'和漢語'看'都具有'使視線接觸人或物'的本義，而且兩個動詞都在換喻方法下從本義擴張成爲多意詞。

二，韓語'보다'和漢語'看'都從具有具體性的意義擴張成爲具有抽象性的意義。

以上總結的是韓語'보다'和漢語'看'的共同點，接下來的是兩個動詞的不同點。

一，韓語'보다'和漢語'看'在意義擴張的各種類型中賓語具有的屬性類型不同。韓語'보다'具有[+人物]，[+事物]，[+具體]，[+抽象]，[+受事]的意義特征，漢語'看'具有[+人物]，[+事物]，[+具體]，[+抽象]，[+受事]，[+施事]的意義特征。

二，在漢語'看'的義項中可以發現'觀察'義項包括較多的詞意解釋和例子，比如：觀察，認爲，判斷，發現，機會，缺點，問題，結果等等。這些義項的特點很明顯，本文提出要詳細地分爲恰當的義項。

【主題語】

boda(보다), 看, 多義詞, 義項, 意義擴張

투고일: 2013. 1. 15 / 심사일: 2013. 1. 20~2. 5 / 게재확정일: 2013. 2. 10